

## 마지막 장에서 확인되는 책의 진가

얼마전 외국의 한 서평지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렸다. 책의 끝에 으레 붙게 마련인 '찾아보기'(Index)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짧지 않은 에세이였다. 그 글의 필자는 색인 만드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는 작가라 했다. 아마도 그 나라에선 전문이론서뿐만 아니라 전기나 소설까지도 색인을 붙이기 시작한 모양이다. 그래서 더욱 엄밀한 분류의 사항색인이 절실하고, 그러려면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푸념섞인 항변이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색인은 책의 페이지조정을 위

한 구색맞추기 매뉴썸으로 홀대하기가 심상이어서 책의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촉박함에 쫓겨 색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 필자의 말은 "책의 진가는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야 확인된다. 좋은 색인을 만들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번 읽고난 책의 어떤 내용을 다시 알고자 할 때, 색인의 효용가치는 높아진다. 한편의 책을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색인은 도서목록 분류카드이다. 분류가 잘 돼 있을수록 효율적으로 책을 찾아볼 수 있듯이, 색인이 친절할수록 책의 내용은 온

전히 독자의 안에 남겨진다. 잘 짜여진 색인은 그 책에 대한 완결성을 보장해준다는 말이다.

색인에 관한 그 에세이가 실린 몇호 후 독자란엔 또하나 재미있는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었다. 산부인과전문의라고 밝힌 독자는 의학서의 고전적 텍스트라 할 전문서적에 실린 색인 하나를 소개했다. '소비니즘, 남성,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음: 1~923 페이지' 그런데 몇년후 나온 증보판을 보니 이렇게 바뀌었던란다. '소비니즘, 남성, 엄청난데 많음: 1~1102 페이지'

집작칸대 색인작성자는 여성이었으리라. 그 독자는 색인작성자의 지나친 주관성 개입을 은근히 꼬집는 셈이다. 어쨌든 우리에겐 여전히 소외대상일 뿐인 '색인'에 대해 그들 나라가 쏟은 앞선 생각들이 부럽고, 색인이란 작은 주제 하나에도 필자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맞설 수 있는 독자의 당당함이 부러울 따름이다.

—김지원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지난호에 이어 「조선서지학서설」 중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이 책은 구한말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체재했던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의 「한국학서지」의 초역본이다.

### ▲ 한국의 인쇄:

중국인처럼 한국인도 새겨진 나무판으로써 인쇄를 한다. 결이 곱고 촘촘한 나무, 보통은 벗나무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깎아낸 두께 2센티의 널판 위에, 새겨야 할 종이의 겉쪽이 널판에 닿아서 글자가 뒤집혀 보이도록 종이를 붙여놓고 板刻師가 백지의 부분을 모조리 파내므로 글자와 테두리만이 도드라져 나온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사용된 원고의 정확한 모조품을 갖게 되며, 이로써 자필원고의 복제를 쉽사리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제, 서문, 발문 등은 저자 자신이 쓰거나 아니면 저명인사가 쓰는 수가 적다.

한편의 책이 명필의 작품을 재현한다. 인쇄술로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을 능가했고 유럽보다 앞섰다. 1403년 현 왕조의 제 3대왕인 태종은 銅으로 활자를 주조하도록 칙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왕명의 집행을 위해 詩經, 書經, 左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를 골라 10만의 동활자를 주조하였으며, 이 나라의 가장 능

란한 달필가들에게 시켜 우아한 활자의 구조공들을 위해 글씨를 쓰게 했다. 사람들은 또 중국판 「綱目」에서 뽑아낸 글자를 모방하기도 하고 중국 고대 명필가의 친필을 모범으로 삼기도 했다. 한국의 군주들이 만들게 한 활자는 10만 내지 20만에 달하는데 왕의 열성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구리가 모자라면 사람들은 허물어진 절간의 鍾이며 관청이나 개인 소유의 그릇과 기구를 가져다가 도가니에 집어넣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인쇄한 간행물에는 모두 왕명에 의하여 이 태종이 발명한 인쇄술의 기원과 발달을 기술한 발문을 붙였다.

### ▲ 한글판 서적:

通俗文字版(한글판)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설과 노래집의 보통판은 조잡하게 판목에 새겨져 있고 나쁜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으며,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그것을 몹시 즐겨 읽고 있다. 사용된 글자는 거의 네모진 한국어이지만, 연이어 쓴 초서체인 때도 있다. 둘째로,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인쇄판 회귀본은 거의 전부가 한문이 원본이고, 한국어는 그 번역과 해설에 불과하다.

한국어의 字體는 균형이 잡혀 있고, 굵은 부분이 썩 두드러져 있지만, 띄어쓰기 보이며 한 음절에 해당하는 한 자 한 자의 한국어는 한 자의 漢字와 꼭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1434년 활판본 「삼강행실도」(253호), 1506년의 판각본 「언기탄산집요」(2506호), 1751년의 판각본 「삼운성취」(66호) 등이 있는데 이 책들은 좋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고 처음 두가지 책은 2절판의 크기로 되어 있다. 끝으로서 울 천주교 전교회회는 최근에 종교서적을 언문으로 인쇄했는데 그것은 소형의 책으로 공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된 책들은 좀 초서체로 되어 있고 판목에 새겨져 있었는데, 약 10여년전부터 전교회는 단정한 형태의 활자를 사용하고 있다.

### ▲ 한국의 지리서: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중국인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리는 역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傳記와 같은 자격으로 역사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리책이 없다는 사실로도 쉽게 설명이 된다. 지리 '문학' - 즉, 총체적인 지리서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행기와

「誌」(설명서, 자료, 기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에의 여행을 몇가지 가지고 있으며 자기 나라에 관해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국 지도도 다수 작성하였는데 그 중 1861년에 된 것은 스물석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부를 합치면 그 넓이가 2.7미터×6.3미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정확한 작품인데, 그것이 한국 고유의 방법만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만큼 더 경탄할 만한 것이다. 서민과 양반들이 국내를 곧잘 여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책은 얼마 없는 셈이다. 한국인은 자기 주위의 자연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호기심이 없으며 관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식물과 동물, 보통의 자연현상은 나날의 경험에 의해서 알려져 있으나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생각은 누구의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그런 거야'라는 대답이면 거의 언제나 충분하다. 그리고 홍수가 난다거나 괴질이 돈다거나, 때때로 한 지방을 황폐하게 하는 재난이 닥쳐와도, 악귀의 소행 밖에는 다른 원인을 찾지 않으며 그러한 재변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당의 도움을 빈다.

## 출판저널

통권 제82호 / 1991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權鍾夏	安秉永
安輝燾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瑞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田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延載	林煥燾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秉鍾	鄭雲瑛	鄭晉錫
鄭謙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鉉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